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적 품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부처님 미소는 관대함의 뿌리”

산문박의 專

예일대 동양문화연구소 이사장 전해성 박사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고히 비교문화론 공부해 온 전해성박사는 내면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보는 혜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불상에서는 편안하면서도 그윽한 미소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미소를 바라 보면 문득 한국의 정신문화는 바로 해탈의 문으로 통해있지 않나 생각하곤 해요.”
 최근 고국을 방문한 전해성(71·예일대 동양문화연구소 이사장) 박사. 52년부터 미국의 예일대에 동양문화연구소를 개설. 만리타향에서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전박사는 선조들이 빚어 놓은 해맑은 부처님의 미소에서 우리 정신문화의 원형을 찾았다.

전박사의 화두는 ‘한국 정신문화의 정체성’이다. 덕린스대학교와 보스톤대학에서 사회학과 인류

여전히 공명했고 불교가 가르치고 있는 불이(不二)의 정신에서 외구성을 떨칠 수 있었다.
 “관대함의 뿌리는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않는 ‘불이(不二)’와 ‘자타불이(自他不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니다.”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 즉, ‘남’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녀의 철학은 고국에서 처음 마련한 ‘수목화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4일부터 9일까지 인사동 아트갤러리에서 ‘동서문화의 소견’을 주제로 열린 전시회에서 그녀는 ‘뉴해이븐 벨로코트의 집’, ‘월남의 여성’, ‘외동고 유목민의 집-갈’ 등 이국적 향기가 짙은 소재를 자유롭게 안은 예술 세계를 펼쳤다.

“내 핏줄에서 ‘자타불이’ 찾아 ‘남을 받아들이자’ 자녀교육

동양연구소 개설후 48년간 미국에 한국정신문화 알려

학을 공부할 때, 동서문화의 교류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전박사에게 그 시절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학문의 길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미국에서 불교세가 급성장하는게 단지 ‘동양적’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인들에게 불교는 역동적인 힘이 이론적인 깊이까지 더해져,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실천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미국인들에게 ‘힘’과 ‘이론’은 가장 인간적인 요소였습니다.”

“7세기 한·중·일·베트남의 법문화(法文化) 비교”를 주제로 연구에 몰두해온 전박사가 한국의 정신문화 속에서 관영장현 경등과 민주와 철학을 찾아낸 것도 당연한 결과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대표적인 불교문화권 나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와 유교문화권의 중국과 인도, 그리고 구한 결과, 인간에 대해 가장 관대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결국 그 관대함의 정신이 내 핏줄기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전박사는 그 관대함의 뿌리는

“수목화는 인간의 내부 생명을 발견하는 길이며 상대방이 내재하고 있는 생명을 파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림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단지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시회 오프닝 행사에는 보스워스 주한미대사 내외, 이화여대 장상총장,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 정신문화연구원 한상진 원장등 국내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고국 나들이를 마치고 지난 10일 김포공항 출국장으로 향하는 전해성 박사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다. 수년만에 고국을 방문해 만난 우인들의 환대와 눈썹이 수목화가로서 고국의 화단에서 처분 성공적인 전시회도 좋았지만, 본래 그녀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은 우선 그 대상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 마련되지. 늘상 보는 주위에서 소중함을 찾는 일, 또는 잘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찾아내 가꾸는 일은 ‘마음을 내는 일’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글=오종욱 기자(gobacou@buddhapia.com)

‘성공한 자녀교육’ 연구대상가족

취재수첩
 전해성(71·예일대 동양문화연구소 이사장). 한국계 2세로는 이 령정부내 최고위직인 국무부 인권담당차관보가 된 고종주씨, 중앙대 회교과 교수 고경신씨, 매사추세츠주 보건후생부장관 고경주씨, 매사추세츠주립대 의대교수 고동주씨, 예일대 석좌교수 고경은씨, 하버드대 출신 화가 고정주씨등 성공한 6 자녀를 둔 한국의 어머니.
 그런 전씨가 들려주는 자녀 교육 원칙은 ‘재주가 덕을 앞서는 안되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일처리를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고 부모들이 ‘앞장서 모범을 보인다’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전씨는 항상 자녀와 함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매사에 관심을 기울였고, 공휴일에는 자녀와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독후감을 썼다. 장씨가 넷째를 임신 중인 서른 살에 보스톤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도 일본과 몽골 등을 돌아다니며 연구활동을 하는 것도 이런 생각에서라는 것.
 전씨의 가족은 미연방 교육부에 의해 ‘성공한 자녀교육’ 사례로 꼽혀 ‘연구대상가족’으로 지정됐다.



◇‘수목화는 인간 내부의 생명을 발견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전해성박사의 수목화 ‘예일대도서관 여성의일대’.



부처님오신날 불교캐릭터 ‘참신-친근’

넓적한 디자인의 불교 캐릭터와 캐릭터를 이용한 편지용품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불교 캐릭터는 96년 조계종총무원회(집행위원장 김대중)가 대종과 함께하는 친근한 이미지의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인 이후 해마다 늘어나 그 종류만 20여종에 이른다. 특히 캐릭터를 활용한 열쇠고리, 핸드폰스티커, 메모꽂이, 버튼 등의 편지용품은 어린이·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층에게도 인기를 끌고있다.

올해 새롭게 선보여 볼품 분위를 높이는 캐릭터와 편지용품은 10여종. 불교캐릭터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조계종총무원회(집행위원장 김대중)는 기존 친근한 캐릭터의 이미지를 더욱 다양화 시켰다. 어린 아이들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해 어린이 포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오름을 사면서 속쓰림을 하는 등, 양치질 하는 등, 공전을 타고 하늘을 날오는 등지의 모습이 친근한 이미지다. 문자, 공책, 손수건, 칼, 공중전화 카드 등 15종류의 편지용품을 볼품기간 동안 판매한다. (02)725-6641

지난해 선공작 인기를 끌었던 핸드폰용 미니스티커 제작사인 불교나라(대표 오나현)는 올해 차량용 악세사리를 집중 공략했다. 불교기를 흔들고 있는 개구쟁이 등자, ‘전상한 유아독존’을 외치고 있는 아기부처님 등의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해 메모꽂이, 불고기 스티커, 장문용 스텝링, 칼이 등 차량용 편지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아이티볼의 수인(手印)을 응용한 캐릭터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부처님의 상호를 의미하는 청·황·적·백·주황의 5가지 불고기 색상을 기본으로 디자인한 수인 캐릭터는 어깨띠, 연등, 현수막 등에 응용된다. (02)733-5721

불교 캐릭터 시장에 새롭게 뛰어든 씨앗과 바탕(대표 김은식)은 묵탁과 염주, 동자승을 청소년의 이미지로 형상화 한 3종의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다. 묵탁은 익살스럽고 조금은 엉뚱한 소녀의 이미지를, 염주는 귀엽고 명랑한 소녀의 이미지를, 동자승은 청소년의 친구같은 친근한 이미지로 표현했다. (02)735-2087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사리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부처님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보살들을 그린 ‘쌍림열반상(부분)’. 1728년, 쌍계사.

부처님 입멸전 열반 예고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33 글 **심종**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 죽음으로 인해 인간은 종교를 생각했고 종교에 의지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고승대덕의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는 ‘불어근 상태’를 의미하며 타오르는 번뇌의 불을 꺼버리고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를 완성한 경지를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입멸 3개월전 바이살리에서 열반을 예고했고 마침내 푸시나가라에서 사리쌍수 아래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오른쪽 옆구리를 붙이고 누워 열반에 드셨다. 제자들이 화장을 하려고 관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 먼 지방에 가 있던 수재자 마하가삼이 7일만에 부처님의 열반소식을 듣고 달

려와 슬픔을 터뜨리며 관을 세번 돌며 경례하니 부처님의 발이 스스로 관 밖으로 나왔고 마하가삼과 대중들이 부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자 다시 관속으로 들어갔다. 이를 ‘관시쌍부’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기 3일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으며 십자가에 못박혀 임종을 맞았다. 예수님은 죽은지 3일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제자를 앞에 나타났다고 한다. 오른쪽 그림은 못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제자들이 슬퍼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프란체스코로 작 ‘그리스도의 죽음’. 1439년, 산 마르코 성당 소장.